

농어촌공, 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구축 힘쓴다

‘집중호우 피해 방지 개선 대책’ 수립 배수펌프 관련, 13개 개선 과제 마련

한국농어촌공사가 ‘집중호우 피해 방지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극한호우에 시설물 설계빈도를 크게 초과하는 한계가 나타나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 당시 ‘사전대비’와 ‘선제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해 주력했다.

호우 전에는 수리 시설물 사전 점검과 함께 저수지 저수율을 평균 58.7%로 낮춰 집중호우에 대비했다. 호우 기간에는 7천179명의 인력을 투입, 전국 3천181개 저수지와 824개 배수장을 운영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일부 배수펌프의 예기치 못한 운영 차질 등 대응 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효율화 ▲인력운영 고도화 ▲고객소통 강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13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시설관리 효율화’를 위해 재난에 대한 설비와 대응 체계 개선에 중점을 둔다. 배수장 성능 향상과 펌프 모듈화를 통해 시설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저수지 모니터링 시설 확대와 경

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인력운영 고도화’를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재난안전종합상황실 근무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리시설 감시원을 정예화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인다. 더불어, 전 직원 대상 재난관리·긴급조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대응 속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고객소통 강화’를 통해 공사의 재난 준비·대응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한다. 공사와 언론·고객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해 농어민과 국민이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는 올 하반기 중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홍수기 이전까지 핵심 개선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배수장 성능 향상과 펌프 모듈화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계별로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극한호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교훈 삼아 보다 실질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한층 강화된 ‘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눈높이와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재난 대응 표준을 제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광주신세계는 20일 아름다운 가게 운전점에서 폐식용유로 만든 재생비누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폐식용유 업사이클링 ‘가치비누’ 기부

자원순환 활동 통한 환경보호 실천

(주)광주신세계가 개점 30주년을 앞두고 폐식용유로 만든 재생비누를 기부했다.

광주신세계는 20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활동으로 아름다운 가게 운전점에서 가치비누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신세계는 세탁용 물비누 400개, 손세정제 600개 등 총 1천개를 아름다운 가게 광주목포본부에 기증했다. 광주신세계가 기부한 품목은 아름다운 가게 광주매장에서 시민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개점 30주년을 맞는 올해 현지 법인으로서 “지역과 같이, 환경과 같이한다”는

의미를 담아 ‘가치비누’라는 이름을 담은 비누를 만들었다. 폐식용유를 업사이클링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지난 30년간 지역과 상생을 추구하며 걸어온 광주신세계의 마음을 담아 가치비누를 만들어 기부하게 됐다”며 “현지법인 광주신세계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광주경총, ‘노란봉투법’ 대응 모색 특강

오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0일 “임원사 및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모색을 찾는 특강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 방안은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란봉투법 대응전략 모색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주요 판례 및 기업 리스크 파악 ▲기업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회원

사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공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강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면되며 선착순 50명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으로서 부담을 갖게 돼 서둘러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우리 지역 중소기업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 3시간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4시간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5시간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 수출 51억7천만달러……전년比 10% ↑

무엇을 광주전남본부 7월 수출입동향

광주 16% ↑ …자동차부품·반도체 영향

전남 농수산물 증가 전환·선박 대폭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 수출이 자동차와 선박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발표한 7월 광주·전남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51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 수입은 10.2% 감소한 37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4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

며 전국 17개 지자체 중 전남은 수출 7위, 광주는 10위를 차지했다.

광주 수출은 16억1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수입은 15.9% 증가한 9억9천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 또한 9억2천만 달러 흑자다.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수출은 증가했으나 고무제품, 냉장고, 계측제어분석기 등 수출은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각각 6억4천만 달러·7.2%, 6억2천만 달러·7.9% 증가해 수출을 견인했다.

특히 이 두 품목이 전체 수출 비중의 77.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수출은 35억6천만 달러로 7.7% 증가했다. 수입은 37억 달러로 10.2%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5억5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농림수산물과 공산품이 각각 15.5%·14.0% 증가했으며 광산물은 21% 감소했다.

농림수산물 수출은 미역(17.8%), 김(136.3%), 기타 조개(2.8%)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증가하며 지난 5-6월 감소세에서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기초유분 등 수출이 다소 감소했으나 철강관, 선박 등 수출이 크게 늘어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

/안태호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 모두 풍부한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 장서는 날 ◎
매주 토요일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장흥군** Jangheung-gun 광고문의 : 062)650-2099